

칼럼

장기채 주필



가을은 무작정 떠나야 만난다

가을은 창문을 열어야 보인다. 무작정 떠나야 만난다. 떠나면서 가을의 숨소리를 들어야 느낀다. 차창을 열고 들녘을 보라! 비록 내가 심어 놓은 추수할 곡식은 아니더라도 황금알이 조랑조랑 달려있는 벼들이 눈부시다. 또 부러질 듯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바라보면 배가 부를 것이다. 가을은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말을 해야 느낀다. 이 글은 가을을 예찬한 '어머니의 사진' 중에서 따온 정여수 작가의 작품이다. 흔히 붉은 꽃과 다투고 여름은 태풍과 싸운다고 하지만, 가을은 다투지 않는다. 내려놓을 뿐 자기 비유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예찬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가을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별거송이가 되어 겨울로 간다. 가을은 시(詩)가 있는 계절, 가을에

숲을 거닐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로맨티시즘의 주인공이 된다. 조각달을 물고 기러기가 돌아 가는 길, 그 가을 길에 노오란 은행잎이 가득하다. 가을은 바람의 수다가 있어서 좋다. 가을바람에 뒤척이는 나뭇잎들 한 잎 한 잎 돌아놓고 마음 흔들리는 가지에 외로움의 등불을 걸고 혼자서 즐기다 취해 봄도 좋을 것이다. 곱게 묶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정취와 서정을 만나 볼 수 있다. 그것은 오직 가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흔히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고 했다. 바로 그 처서가 지난지도 한 달이 가까워 온다. 아무리 사는 일이 팍팍하다 해도 높은 하늘이 가을을 실감케 한다. 폭염이 제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자연의 섭리는 어느 덧 조석으

로 조금은 시원한 바람이 청량감을 준다. 하늘의 코발트색이 나뭇잎이 짙어지고 있다. 분명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가을이다. 이제 지나간 백로와 함께 귀뚜라미의 합창도 시작됐다. 곤충 학자에 의하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기온이 섭씨 24도 내지 26도 일 때 가장 높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가을을 만끽 할 수 있을 것이다. 태풍도 폭염도 쉴 새 없이 쏟아지던 빗줄기도 시간의 골레 앞에서 무뎠을 풀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도 지났다. 들녘의 벼도 머리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린다. 이렇게 자연은 호된 시련을 주기도 하고 또 반드시 인간에게 안식과 수확을 주기도 한다. 가을의 가는 곧 우리의 옷소매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국민이 걱정해야 한다. 국민에게 오늘의 확실함과 내일의 청사진을 알려줌 없이 그 자리에서 맴도는 꼴이다. 가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결실의 가을, 수확의 가을이라고 하지 않는가. 올 가을에는 흐릿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어봤으면 한다. 자연의 시련을 넘겼다는 안도보다 새로운 용기와 의욕이 필요하다. 경제의 어려움은 장기화되고 많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힘을 잃어버린 정치에 이 찬란한 가을과 더불어 새로운 영감과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자연의 시련은 계절과 함께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이 저지른 재앙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는 저 푸른 창공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을 멋있고 맛있게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가을의 은총에 감사해야 한다. 지금 온 들녘은 황금물결이 일렁인다.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이다. 삶의 보람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한다.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이다. 자연이나 인생이나 가을은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社 說

직장내 괴롭힘 사라져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신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지법을 보다 더 철저히 적용해 엄단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특수경비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상급자인 반장에게 폐쇄회로(CO)로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당했다. 반장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반장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근무를 잘 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원 B씨도 육설과 해고 협박을 일삼는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지만, "그 정도도 못 참느냐"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는 법이 시행된 7월 이전 하루 평균 65건에서 법 시행 이후 102건으로 늘어났다.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제보의 비중도 전체의 28%에서 58%로 증가했다. 회사의 무관심과 불이익에 시달리던 직장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 받거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예방 더 큰 피해를 줄이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에는 농부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또 다른 농부는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최선을 다해 땀방울을 흘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참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숭고한 한 장면이며 논과 밭들 판에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푸근해진다. 팔순이 다 되시는 할머니가 이제 그만 쉬시라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약벌에 나가 참

깨 등 밭을 일구셨던 이유는 손수 짠 기름을 자식들에게 쥐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임을 알기에 그 기름병 하나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부의 마음을 짓밟고 농산물을 절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농산물 절도는 갈수록 대범해져가고 차량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하룻밤 사이에 농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도 한다. 농부에게 농산물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해서 경찰은 다양

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대책에는 농민 개개인의 협력치 안 구축이 절실하다. 자체적으로 자위 방법의 방안을 살펴보면, 농산물 보관시 잠금장치와 도난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보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여 예방한다. 설치가 어려울 땐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농산물보관 장소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다. 그리고 마을을 배회하는 낯선 차량을 발견할시 번호판을 기록유지해둔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인근자구대, 파출소에 예약순찰제를 신청하여 예약 시간대에 순찰

실시 이상유·무 점검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치안서비스를 이용토록 권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농산물수확기 탄력순찰을 통해 절도예방에 집중하고 있고 범죄 취약개소를 살피며 방법진단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경찰관은 농산물 절도예방 노력과 농가의 농산물절도 예방실천으로 '땀방울의 진실'을 믿고 살아가는 농부의 삶을 짓밟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경찰은 더욱 업무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주시환 / 광산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